

거주자의 문화를 통해 본 강화도 최소중정형 특입구자집(Π형 평면)의 해석

이 희 봉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권 오 경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

주요어 : 최소중정형, 특입구자집, ㄷ자집, 거주자 문화, 민가, 문화기술학, 인지인류학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대상 민가는 강화도 서북부에서 자주 발견되는 독특한 주거 형태이다(그림 1,2). 외부로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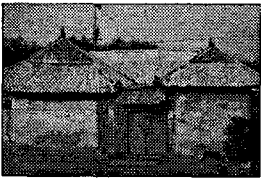


그림 1. 외관. 교동도



그림 2. 외관. 하점면



그림 3. 좁은 안마당

쇄된 형태를 이루고, 가운데 아주 좁은 내부 안마당을 가지고(그림3), 좌우대칭의 지붕형태는 강한 시각적 조형성을 갖는다.1)

기존 민가 연구에서 물적 형태의 유형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정착 왜 집이 이런식으로 지

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형태에 숨어있는 설계원리를 해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과 방법

대상 유형의 주거는 강화도 서북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바, 하점면의 5개리(창후리, 이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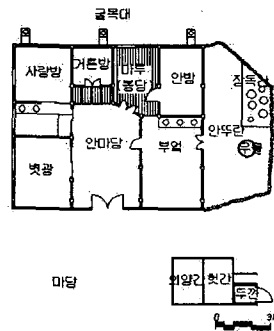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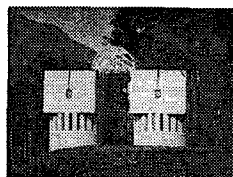


그림 4. 특입구자집. 하점면 창후리 김순동씨 집

신봉리, 삼거리, 장정리)와 교동면의 2개리(고구리,



1) 이 형태는 좌우대칭을 주제로 하는 현대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주거와 닮아있다. 오리글리오 주택 사진(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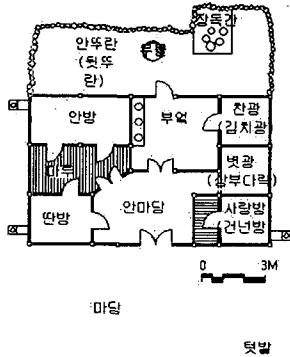


그림 5. 교동면 고구리 황경준씨 집

상룡리)의 20채의 집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본 연구대상인 순 최소중정형 튼입구집은 12채이고, ㄱ자집에 채를 구조적으로 연결한 튼입구자집이 2채, 중정이 비교적 넓은 튼입구자집 1채이다. 비교를 위하여 一자집(1채), ㄱ자집(3채), ㄷ자집(1채)에 행랑채가 덧붙은 집 5채를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1. 조사대상 민가

조사 대상 민가	집의 형태
1 하점면 창후1리 김순동	최소중정형 튼입구(Π)집
2 하점면 창후1리 임창룡	
3 하점면 창후1리 구광희	
4 하점면 창후2리 고정균	
5 하점면 창후2리 조정식	
6 하점면 창후2리 봉종옥	
7 하점면 이강1리 한상돈	
8 하점면 이강3리 서덕용	
9 하점면 이강3리 서지수	
10 하점면 장정1리 나승환	
11 교동면 고구1리 황경준	
12 교동면 상룡리 전두섭	
13 하점면 신봉1리 신상영	마당이 넓은 상류주거형 튼입구(Π)집
14 하점면 창후1리 이희생	ㄱ자집에 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ㄱ자가 된 집
15 하점면 신봉1리 이순덕	一자집 + 행랑채
16 하점면 삼거리1리 이희백	ㄱ자집 + 행랑채
17 하점면 삼거리1리 이용호	
18 하점면 삼거리1리 이순찬	ㄷ자집 + 행랑채
19 하점면 장정1리 라운출	
20 하점면 창후2리 유재권	

배치 평면실측과 관찰 사진기록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형태와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관념과 생

활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파악한다. 연구의 틀은 처음에는 광범위한 질문으로 시작으로 분석을 통하여 점차 좁은 주제로 좁혀나가는 文化記述學적 (ethnographic) 방법을 사용한다.²⁾ 중요한 것은 외부 연구자의 보편적 지식이 아니라 내부 거주자의 지식, 즉 국지 지식(local knowledge) 또는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을 얻는 것이다. 말로 나타나는 그들의 지식 분류를 통하여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의 방법이다.³⁾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좌우대칭 외관의 폐쇄형 완결형태를 이루고, ㄱ자형태의 지붕 사이에 아주 좁은 안마당이 형성되고, 트인 정 중앙 끝에 담을 막고 대문을 둔다.

2.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와 민속 분류

유형은 분류의 결과물이다. 분류체계는 절대적,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의 문화지식을 반영한다.⁴⁾ 연구대상 집의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ㄷ자집'으로 분류된다.

김광언의 「주거민속지」의 경기도 섬지역 연구에서 강화도에 ㄷ자 집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었음을 언급한다. ⁵⁾

“(경기도 섬지역에) 디글자집은 15%에 불과하다. 삼목도와 영흥도에는 20%쯤되나 장봉도와 덕적도는 10%에도 못미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석모도의 디글

2) James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및 *Ethnographic Interview*. 시작단계의 일반관찰에서 시작하여, 집중관찰-선별관찰로 이르고, 그때마다 서술질문-구조질문-대조질문을 하여 몇 개의 주제로 좁힌다. ‘文化記述學’은 원래 미개인 연구방법으로 ‘民族誌’로 번역되었다. Spradley는 인지인류학 이론에 바탕을 둔 점진 발전식 연구방법을 개발하였다.

3) Stephen Tyler, *Cognitive Anthropology*. 특정 문화 집단의 주민의 지식체계를 연구하는 인류학의 한 분야이다. 머릿속은 직접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말’로 구성된 ‘분류체계’ 파악에 집중한다.

4) 한 집단의 내적 분류체계를 민속분류라 부른다(folk taxonomy). Spradley 89쪽.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실상이 아니라 기호에 불과하다. 문화집단에 따라 그 말이 속한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김’은 우리에게 ‘떡을 짓’이지 만 서양인에게는 ‘바다잡초’에 불과하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처럼 내부인 그들의 세계를 파악하려는 것을 ‘emic’ (phonetic에서 음) 방식이라 부르고, 반대로 우리 학문세계에 익숙한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방식을 ‘etic’ (phonetic) 방식이라 부른다.

5)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8. 214쪽

자집은 30%에 가까운데, 그것은 강화도의 영향 때문이다.”

윗글 ㄷ자집에는 본 연구대상인 튼입구자집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처럼 이 집을 “ㄷ자집”으로 보편적으로 광범위로 분류하여서는 이 집의 특질을 알 수 없게 된다.

김성우(외)는 강화 교동도 민가 특성을 6간8자(기본모듈8자 6칸)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대상 집을 ‘ㄷ자집’으로 분류한다.⁶⁾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一자, ㄱ자, ㄷ자로의 확장과정으로 본 연구대상을 ‘ㄷ자집’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박선주는 서해안 도서 평면 연구에서 북부지역인 강화 교동도의 본 연구대상 집을 다른 지역의 ㄷ자집과 구분하여 “가장 작은 규모의 ㄷ자집”으로 묘사한다.⁷⁾

연구대상 집에 사는 거주자들은 연구대상 집을 “튼입구자집”이라고 명확히 구분한다. ‘되리집’⁸⁾(입구자집)이나 ‘ㄷ자집’과 구별하고 있었다. 되리집은 외관 전면에서 보아 일자형 높은 문간채가 형성되므로 혼동의 여지가 적다.

“이건 되리집 아니야. 되리집은 네군데 다 막아야 되리집이지.”(고정균)

“터진 입구 집’이라구 그러지. 터진 입구. 이렇게 여기만 (대문쪽) 확 터졌으니깐 ‘터진 입구 집.’”(황경준)

“할아버지들이 어디가든 ‘튼입구집으로 집 짓드라’ 그러지. 뭐 어째서 튼입구자다 그런 건 모르지. 옛날에는... ‘튼입구자로 지으면 괜찮지 뭐, 행랑두 안 짓구’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구.”(한상돈)

“이런 ㄷ자집을 튼입구라 부른다. 원인은 모르고 어른들이 부르니 따라서 붙었다”(장정리 박시열 목사)

다음으로 유형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건축학계에서 같은 용어로 불리는 ‘튼입구집’(일명 ‘튼ㄷ자집’)을 본 연구대상과 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홍식은 「한국의 민가」에서 ‘튼ㄷ자집’을 “곱은 자 형태인 안채와 사랑채가 ㄱ ㄷ자로 배치된, 기호지방의 부농 및 자영농의 일반적 형태라고 부른

다.”⁹⁾ 그에 해당하는 평면은 다음과 같다.(그림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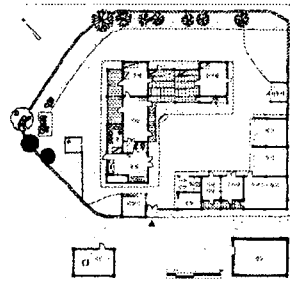


그림 6. 기존분류 ‘튼ㄷ자집’-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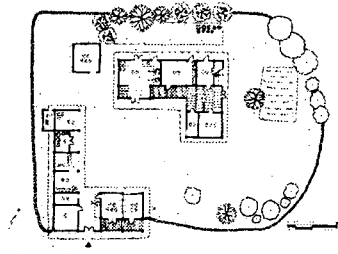


그림 7. 기존분류 ‘튼ㄷ자집’-괴산

강화도 주민은 이러한 ㄱ+ㄷ형의 집을 안채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히 ‘ㄱ자집’이라고 부른다.

이순찬씨 집은(그림8) ㄱ자 안채 + ㄷ자 바깥채 집으로, ㄱ자 안채가 지어지고 약 30년 후에 ㄷ자의 바깥채가 지어졌다. 이렇게 바깥채가 나중에 붙은 ‘ㄱ+ 바깥채(一자, ㄷ자)’로 이루어진 집을 주민들이 ‘ㄱ자집’이라 부르고 있음을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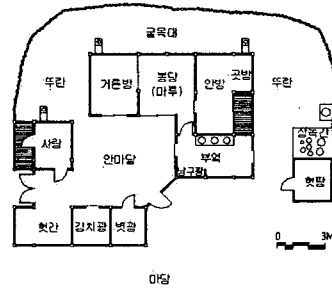


그림 8. ㄱ자집(이순찬씨 집)

“이거 ㄱ자집이라구 그래. 저 행랑은 ㄷ자구. 이게 ㄱ자집이지 뭐.”(이순찬씨(82세))

“우리집은 ㄱ자집이죠. ㄱ자 집인데 바깥채 행랑채

6) 김성우, 윤정숙, 박선주, “6간8자형 민가의 성격과 공간확장 형식-경기도 강화군 교동도의 민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06.

7)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9, 79-80쪽 일명 ‘자물쇠집’으로 표현한다.

8) 표준어 ‘되리’의 강화도 방언. ㄷ자형의 지방 가운데 마당 구멍이 뚫린 규모가 작은집.

9) 김홍식, 「한국의 민가」 권. 424쪽

우물도 있다.¹³⁾ 뚜란 쪽에는 쪽대문을 달아 직접 출입하기도 한다.

지붕은 물론 원래 초가였으나 박대통령 시절 지붕개량 사업에 의해 스테이트였다가 함석지붕(도당이라함)으로도 바꾸었다.

특입구집에 나타나는 공간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1)방

-안방: 보통 8자 2칸으로 되어있고 주인 부부가 기거.

-곳방: 곳구들. 안방 윗목으로 반칸 정도 방이 나감. 들창이 나 있고 그 아래에 보통 발재봉 놓여 있었음.

-거큰방: 건넌방 이라고도 함. 자식들 거주. 보통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기거하는 신혼부부방.

-사랑방: 남자어른이 기거하는 방으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기능을 한다.

(2)마루, 부엌

-마루(붕당): 원형은 흙바닥 붕당인데 점차 마루를 깔았으나 명칭은 계속 붕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동도에서는 '6간8자'집에서 안방퇴가 늘어나서 마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붕당이라고 하지 않고 마루라고 함.

-부엌: 안방과 같이 8자품의 2칸으로 되어 있음

(3)퇴

-안방퇴: 곳방이 있는 경우에 그 밑으로 반 칸 크기의 퇴가 달림. 뚜란으로 출입하는 경우나 밥상을 들이는 경우에 완충공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

-사랑퇴 : 손님이 오는 경우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들이는 경우에 완충공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

된 외부의 여성 공간으로 '뒤안'으로도 불리고, 제주도에서 '안뒤'라고 한다.

13) 선행연구 박선주 (79-80쪽), 김성우의(149쪽)에서 안마당을 '안뚜랑', 뚜란을 '뒤뚜랑'으로 표기하고 있다. 면담에 의하면, 거주자들이 사물에 대한 명칭부여시 내부 방에 대해서는 분명 하지만 외부 마당공간에 대하여는 그다지 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중정을 뚜랑으로 부르는 거주자도 없는 것은 아니나, '안마당'으로 부르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다. 어원상 '뒤'를 지칭하는 뚜랑이 한 가운데인 '안'마당으로 나오는 것은 모순이나, 뜰이라는 외부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슷하게, 대문밖을 그냥 '마당'이라고 부른다. 안마당과 구분하기 위하여 '바깥마당'이라고 연구자가 첨가 명명하였다.

(4)수장공간

-다락: 안방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부엌의 위층 1칸을 차지하고 있음¹⁴⁾

-벽장: 다락보다 작은 수장공간으로 다락 아랫부분에 위치함.¹⁵⁾

-낭구(나무)팡: 부엌 안에 있으며 아궁이에 불때는 나무를 쌓아둠.

-벧팡: 탈곡한 벧가마를 보관하는 곳으로 안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헛간: 쟁기, 호미, 갈퀴 등의 농사기구를 보관.

-헛팡: 고팡.

-팡: 농사기구나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

-김치팡 : 김치는 보관하는 곳.

-찬팡: 반찬을 보관하는 곳.

-으깃간 : 천장을 막은 반외부·반내부적인 완충공간으로 물건들을 들여 놓았음.

(5) 외부공간

-안마당: 뚜란이라고도 함. 안방이나 부엌정도 크기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사각 마당으로 모든 방으로 출입하는 동선의 구심적인 역할을 함.

-뚜란: 부엌과 연결되는 외부공간만을 지칭하는 말로 정착화 되었다고 추정됨.

-마당: 대문밖에 있는 마당을 말하며 탈곡을 마당질이라고 할만큼 탈곡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컸음.

-굴목대: 집 뒤 굴뚝이 있는 곳

(6)가축 공간

-외양간

-돼지우리: 돼지장, 돈사

(7)기타

-두간: 화장실

(8) 농사짓는 방

-덧밭: 집 주위에 만들어지는 조그만 밭. 김치거리, 반찬거리 위주로 심어 먹음.

-논: 보통 면단위로 큰 벌판을 형성하고 있어서 큰 길로 한참 나가야 논이 있으며 보통 2천평에서 4천평정도를 소유하고 있음.

-밭: 보통 밭은 집 뒤의 산 밑에 있음

14) 물건의 수장을 위한 방의 상부를 막아서 만든 방. 주로 부엌 상부이지만, 외양간 혹은 고팡의 상부가 되기도 한다. 오래된 집에서는 고물기를 이용하므로 다락 공간이 대단히 넓다.

15) 부뚜막 상부나 대청 뒤 퇴의 상부에 만들어지는 불박이 수장공간.

거주자 면담을 통하여 각 공간에 대한 모든 활동의 내용을 총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공간에 따른 활동의 종류

공간구분	공간	활동
내부공간	안방	잠자기, 상차리기, 밥먹기(겨울), 재봉질하기, 화문석을 매기, 직조하기, 제사지내기, 임종을 맞이하기, 염하기, 김장하기(추울 때)
	다락	안쓰는 물건 보관하기
	거른방	잠자기
	사랑	잠자기, 손님접대하기
	마루(붕당)	상차리기, 밥먹기(여름), 나르기, 땀물질하기, 다듬이질하기
	부엌	밥하기, 부뚜막에서 설거지하기, 큰일 때 음식하기, 소죽쭈기, 아궁이에 불때기, 김장하기(덜 추울 때)
	나루간	나무 쌓아놓기
	벚광	탈곡해서 벚가마를 쌓아놓기
	헛간	농사기구나 음식물 보관하기
내외부 완충공간	거른방퇴	걸터앉기
	사랑퇴	걸터앉기
외부공간	안마당	들락날락하기(출입하기), 초례지내기, 큰일 때 음식하기(튀김, 집이 좁을 경우), 발인제 지내기
	뚜란	빨래하기, 빨래널기, 설거지하기(큰일 때), 음식하기(큰일 때) 김장하기(부엌 개량 전), 장담그기, 여름에 밥하기(화덕해서), 장작패기
	마당	탈곡(마당질)하기, 빨래널기, 아이들이 놀기, 장사지내기
	굴목대	김매기(뒷밭과 연결)
기타 부속공간	광	농사기구 보관하기
	뚜칸	오줌누기, 똥누기, 똥을 재로 덮어 뒤로 제쳐놓기, 논밭에 거름으로 내놓기

3-2. 최소 안마당을 갖는 작은 규모

주 거주공간인 방의 3개, 즉 안방, 거른방, 사랑방과 붕당마루와 부속공간인 부엌, 광, 헛간으로 구성되는 최소형의 ㄷ자집이다. 각 공간의 크기는 보통 8자 모들로 일정한 편인데, 대체로 사람들은 사랑 8자칸이면 큰 칸, 사랑 7자칸이면 작은 칸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수씨 집의 각 공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표3. 최소중정형 뜬입구집의 공간의 넓이 (서지수씨 집 기준)

공간의 크기		
안방	8 × 8 자	두 칸
안방의 곳구들	4 × 8 자	반 칸
안방 바깥쪽의 땃마루	4 × 8 자	반 칸
거른방	12 × 8 자	한 칸 반
사랑	12 × 8 자	한 칸 반
사랑 앞 땃마루	12 × 4 자	0.75 칸
붕당(마루)	7 × 8 자 × 2 + 14 자 × 4 자	세 칸

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한상돈씨 집을 보면 13m x9m의 4각 평면에 5m x4.5m의 작은 구멍 같은 빛 우물 안마당을 빼면 건평이 겨우 28평이 된다. 안마당은 부엌이나 안방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 집의 높이도 낮으며 안마당과 내부공간은 매우 어두운 편이다.

3-3. 안마당이 동선 중심 역할

뜬입구집의 대문은 보통 큰대문과 쪽대문 2개가 있다. 큰대문은 안마당쪽으로, 쪽대문은 뚜란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다. 큰대문을 열고 안마당을 거쳐 내부로 출입하였다. 안마당에서 모든 방으로 직접 연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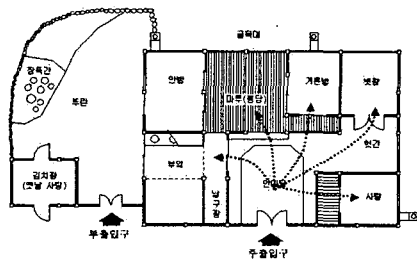


그림 12. 최소중정형 뜬입구집의 출입동선

안마당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허긴 뭘해.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 허는거지”(서덕용), “뭘 할 거 있나. 아무것도 안해.”(고정균)라는 대답을 얻었고, 혹시 명절 때라도 안마당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차라리 (바깥) 마당으로 나가지. 고기 구워먹으러. 여기서 한거 없어. 줍지.”라는 답을 얻었다.

안마당에서 혹시 추수시 벼를 터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누가 안마당에서 벼를 털어. 밖에

(바깥마당) 나가 털지”(고정균)라는 답을 얻었다. 벼 추수시 탈곡하는 장소는 마당이고, “마당질”이라고 표현한다.

집을 고치기 전의 한상돈씨 집에서는 일반 □자 집처럼 16자 사방이상의 넓은 안마당이 있었는데 지붕에 천으로 된 차양을 치고(철패이라 표현) 딸 넷의 초례를 치루었다고 한다.

좁은 안마당이지만 장사지낼 때 발인제를 지낸 면담도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치루었다. 안방에서 돌아가셔서 옆해서 관짜서 들여놓고 들여 넣고, (안)마당에서 발인제를 지냈다. 상위에 관을 올려놓고, 음식 차려서 제사지내고 곡하고 따라갔다.”(김순동)

이상의 면담을 통하여 좁은 안마당은 다양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보통 □자집의 넓은 안마당에 비하면, 활동이 별로 없는 출입 동선의 구심 역할을 하는 빈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4. 안채와 바깥채의 완전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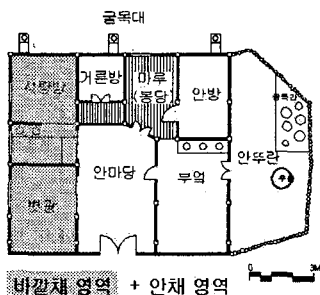


그림 13. 집의 영역 (김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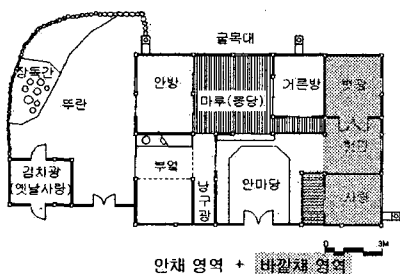


그림 14. 집의 영역 (한상돈)

강화도에 가장 많이 있는 ㄱ자집에서 바깥채(일명 행랑채) 영역에 포함되었던 사랑방과 벋방이

안채에 결합하여 튼입구(Π)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바깥채를 따로 지었던 ㄱ자집의 안팎채와는 다르게 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튼입구(Π)집이 다른집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안방, 거른방, 봉당, 부엌의 안채 영역과 사랑방, 벋방, 헛간의 바깥채 영역이 완전 결합하는 공간배치인 것이다.

3-5. 안마당의 내부공간화

튼입구(Π)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안마당은 다른 집과는 달리 영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폐쇄적인 협소한 외부공간이다. 튼입구집의 형태로 인해 마당, 안마당, 뚜란이라는 외부공간의 각 영역이 확실하게 분화되었고, 따라서 각 외부공간에서 하는 일과 성격이 분명하게 정해졌다.

안마당은 바깥마당에 대하여 안의 성격을 갖는데, 안마당 천정에 지붕을 만들어 완전 내부공간을 만들게 된다. (12집 중 9집 지붕 덮음). 빛이 투과하는 반투명 플라스틱 슬레이트로(이 재료를 ‘뿔’로 표현) 박공형태의 지붕을 만들어 덮는다. 그럼으로, 비가 들어치지 않게 되는 안마당의 성격이 수장 또는 보관 공간으로까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공간화된 안마당은 비에 젖지 않게 물건을 보관하는 곳, 특히 곡물 보관으로 사용된다. 다음 면담을 통해 안마당이 내부공간화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리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못떨어지게 인제 그 방비한 거죠. 이거 아마 한 10년 됐을 거예요 이거 한 지. 그전엔 그냥 떨어졌죠. 그전에는 지붕 안했기 때문에 그냥 비가 이루 오니까 또 들여놓구 그랬죠.” (이용호씨)

“안마당에는 쟁기, 쓰래, 저 길마, 걸채. 여기다가 그걸 다 놓으려면은 상당히 차지해요. . . 이 농기구 이런 거 다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안마당에다 들여다 놓죠. 밖에다 놓 수 없으니까. 헛팡 얽은 사람에 안마당에 놓구, 헛팡 있는 사람은 그런데다 두구 그랬죠. 이 추녀 밑에 모두 놓구 그러니까 아무래두 비 들이치면 비 맞죠. 밑으로 이 아래다가 인제 지게두 놓구 인제 뒤 여러 가지 비료를 놔두죠. 비가 들이치면 맞지만은 웬만해선 좀 들 맞죠 아무래두.” (이용호씨)

순수 튼입구집 12집중 3집, 구광희씨 집, 한상돈씨 집, 서덕용씨 집은 예외적으로 안마당을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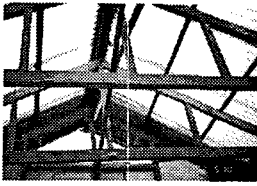


그림 15. 안마당의 투명 아크릴 슬레이트 지붕



그림 16. 보관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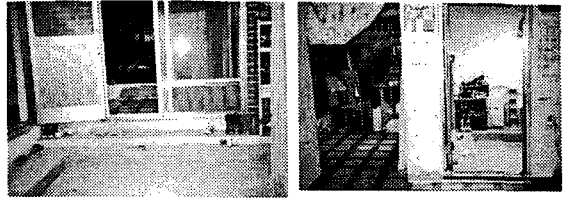


그림 17. 서덕용씨 집 고친 후의 모습

으로 덮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면담내용과 같이 여름에 덥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안막았어요. 막으려는 여름에 더워. 바람이 안 들어 와서.” (한상돈씨 부인)

“다른 집들이 여기(안마당 위)를 막는 이유는 비오면 비 안맞고, 그걸 허면 더워. 그래 우리가 안한 다니까. 플라스틱이라 태양 쬐면은 더 더워. 근데 그 거 하면은 비올 때 그때는 좋아. 비 맞을 거 저 갖다 놓구. 여기는 다 비 맞잖아. 우리는 다 이리(헛간) 들어오잖아. 콩이니 뭐 깨 같은 거 넣었다가.” (한상돈씨 부인)

안마당과 연결된 별도의 헛간 공간이 있어서 별도의 비 피하는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과거 초레치를 때 안마당 지붕에 천으로 차양을 막아서 임시 내부공간화하기도 하였다.

“결혼하구 그러는데 뱀생가 뭐가 지나가다 똥오면 어렵다 그래서 췌(차양)을 쳤어. 6.25전에는 베로 다 했는데, 베가 없어지나간 광목으로 했고, 이제 췌 없어지고나서 갑바로 하잔아.” (한상돈)

작은 빗우물 구멍이었던 준내부공간인 안마당은 이미 과거부터 지붕만 덮어서 내부공간이 됨을 알았고, 재료의 발달로 인하여 한결음 더 나아가 영구시설로 반투명 플라스틱 골스레이트로 손쉽게 막아서 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비와 추위를 막고 있었다.

한편 안마당을 지붕으로 막는 대신, 마루 앞 마당 일부를 막아서 동선용 준내부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덕용씨 집은 위의 도면에서와 같이 각 실들의 외부를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다 연결이 되도록 변화되었고 부엌에서 안방으로 밥상을 들이는 동선도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안방의 툇마루와 곳방이 점점 퇴화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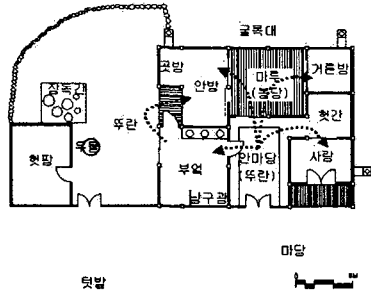


그림 18. 안마당에서 각 공간으로 연결 (서덕용씨 집 고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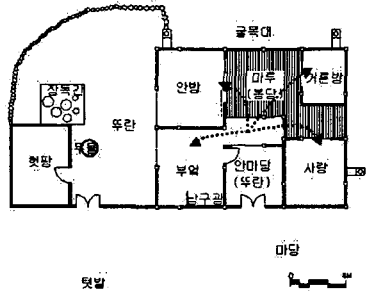


그림 19. 동선의 내부공간화 (서덕용씨 집 고친 후)

4. 해석: 거주자의 문화를 통해 본 최소 중정형 튼입구집

4-1. 집짓는 관념

민가는 집짓는 관념이 크게 작용한다. 다른 집의 형태가 영향을 주면서 더 보완되고 수정되어 그들의 지혜가 쌓여진 산물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튼입구(ㄷ)집도 한창 잘 짓는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그 집을 짓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른 집) 우리 보다 늦게 지었어. 우리 꺼 지은 거 보구 또 올라와서 견학보구 가 지은거니까. 그때만 해두 새루 짓는 집들이 드물어서 그걸 보진 않았는데 우리 짓구나니까 그냥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구. . . . 우리 그저 목수 구해갖구 그럭큼 이럭큼 저서 ‘행랑 다시 안하게 지어 주쇼’ 이러니깐 이렇게 지어 준 거거든. . . . 근데 딴 사람들은 짓는 거 보구 요건 보완해야 겠다 요건 뭐 잘 됐다 그렇게 했다구.” (한상돈씨)

“잘 짓는다 하구 한창 지은거지. 사람들이 이 터진 입구자 집을 좋다구 그랬어요. 좀 크구, 방 컷죠. 그전에 쪼꼬맹드랬지. 7자집보담은. 방 하나 방 하나 구들 하나 부엌 하나 그랬죠. 이게 그전에는 저 7자집, 一자집으루 많이 지었는데, 차차 그 발전되가면서 이 7자루 짓구, 터진 입구로 또 짓는 사람들두 있구 그랬지. 이렇게 터진 입구 집이 옛날에도 많진 않았어요.” (황경준씨)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관(地官)의 영향이 상당히 컸으며 사람들은 지관이 이야기하는 풍수지리적인 생각을 신앙처럼 받아들였고 지금도 다들 일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관들이 허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겨울에 눈 많이 오잖아요 눈 많이 오구 춥잖아요. 근데 사람은 집근처엔 다 눈이 녹아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그 옛날 그 지관들이 했던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돼개 햇빛이 잘 들구 그 따뜻할 것 같은데두 해는 드는데 눈이 안녹는 데가 있다구. 근데 집들 앉은 자리 다 녹아요. 그러구 옛날 집터자리 거기 집이 없는데두 녹아요 눈이.”(한상돈씨 아들)

지관이 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민가에 대한 지관의 영향

- | |
|--|
| ① 몇 살에 집을 지어도 되는지 해(年) 운을 봐 줌(나이) |
| ② 지세를 살펴서 좌향을 정해줌 (안매) |
| ③ 집뿐만 아니라 묘자리, 비석 세우는 시기도 봐 줌 |
| ④ 집을 헐고 다시 질 때 안방굴뚝 뒤로 넘어갈 수 없게 함 (관례) |
| ⑤ 대문을 들판으로 바로 나가게 하지 않고 복이 다 나간다고 하여 어느 집에 가리서 내거나 담장을 두름 (관례) |

- ⑥ 지관이나 스님이 볼 때 복이 빠져 나갈 것 같은 대문을 걸어 두라고 권유하면 쓰지 않고 빗장을 질러 두고 다른 문을 이용함
- ⑦ 집을 흰히 보이게 높게(돌게) 지면 복나간다고 폭 꺼진 자리에 낮게 지거나 담장을 둘러 쌓음
- ⑧ 식구가 많지 않은데 집이 크면 사람이 집한테 휘둘린다고 생각함

연구대상 민가중 한상돈씨 집과 이용호씨 집이 지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연구대상 민가에 대한 지관의 영향

	한상돈씨 집	이용호씨 집
해운	1977년에 운이 닿음	1973년에 운이 닿음
집터	집을 헐고 그 터에 다시 지음	새터(원래는 밭)에다 집을 지음
좌향	간좌곤향 (서남향)	을좌신향 (북서향)
출입문 위치	동남쪽	계축방

지관인 이용호씨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깐 다른 데 살다가 중간에 여기 내가 집 짓구 올라와 사는 거지. 여기 밭이지. 이 집두 내가 운하구 좌향을.. 그 저 뭐 운두 운이지만은 우선 집이 급허니가 집을 진 건데 그래두 안제 이거는 내가 맞아야지. 못 지을 운에 지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냥 진 거예요. 73년도에 지었어요. 여기는 저 을좌신향이에요. 나침반에서 이게 북이고 여기가 남인데, 여기 여 올라 있잖아요 여기 신자 있구. 대문의 위치는 여기 계축방되겼어요. 지금 여기 이 안채만 있을 때허구 바깥채 있을 때허구 구조가 다르죠.” (이용호씨)

나이를 보고 태어난 해를 따져보아 해운이 닿아야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해운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운을 빌려 집을 짓기도 했으나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우리 한 해 저 넘어 집 짓는데, 그 사람 오문 같이 봐 달라구 그리는데. 근데 그런 것두 무시 못해요. 그 양반이 좋지 않구 아들 명의로 한다구 그러드라구. 아들이 어렸어. 근데 그 집을 지탱 못허구 두 내우(내외)가 지금 다 한 양반(양반)은 일흔 다섯인가 그러구 마나님이 한 살 더 먹었다구 그랬던가 아래라구 그러던가. 근데 그 두 내우(내외)가 다 죽었어. 아들 두 거기 못살구 저 인천 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재 아들 인제 어렸데두 그 아들 운 닿다구 아들 운으루 지었거든.” (한상돈씨)

“지금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운이 안당고, 근데 다른 사람이 운이 단단 말이야. . . 그러므는 우리 집을 그 운 닿는 사람 앞으로 짓는다구. 짓구 나야 주인아니야 내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기약(계약)하는 식으로, 돈을 주구 그 사람 집을 내가 사는 거마냥 한다구. 그라 운이 안당르. 근데 짓긴 지어야 갔구.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다구. 근데 지금 그러헌 사람들 다 좋질 않잖아. . . 그러구 우리 집을 운 닿는 다른 사람 앞으로 지었는데, 자는 것두 그 사람이 먼저 자는 거야 여기. 하루 저녁. 먼저 자구서는 그 이튿날은. . . 내가 그 사람한테 사는 것 마냥 계약서를 쓰구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구 지금두. 근데 그거 좋질 않아. 그래서 이 집두 짓는 거 상당히 운 많이 봐. 그래 지금 여기 집 지었는데 다 3년 안에. . . 편안하든 아주 그거 질 땅이라구 그러잖아. 3년 동안 냉기기가(냉기기가) 어렵대잖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한상돈씨)

집을 지을 운이 닿으면 지관이 집 지을 터에 가서 안매를 보고 칸수와 좌향을 정하는데, 좌향에 대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당 기둥을 보든은 인제 어떻게 지을거다 그러믄은 그 사람이 고걸 봐가주구 고대루 그 안매를 보는 거야. 그렇게 고기서 이력허든 칸수가 나오잖아. 그 나침반을 갖다놓구 거기다 인제 이 활 나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갖다 꾸부리면 활 되잖아. 그러믄은 실을 해가주구 고걸 요렇게 꽃아 놔. 내 운과 그걸 보구 요쯤 지으면 그거 인제 무슨 좌향으로 나가야 좋다. 산소 쓰는 거와 똑같아.” (한상돈씨)

“어느 집은 남쪽으로 터지구, 동쪽으로 터지구 그런 집이 있어요. 지관의 영향이 커요.” (한상돈씨)

대문을 들판으로 바로 나가게 만들지 않고 앞 옆집에 가려서 내거나 담장을 두르는 것은 ‘복’이 나가지 않게 한다는 내부인의 관념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게요, 우리 아버지 말씀 중에 이 대문두요 시골 들판으로 바로 나가게 못 지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복이 다 나간다. 그래 가주구 대문이 딱 나두 어느 집에 가려서, 그제 막아준다구 그러잖아요. 바람 막아주는 역할두 있죠. 복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가지구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한상돈씨 아들)

보통 대문은 안마당쪽 큰대문과 두란쪽 쪽대문 두 개가 나 있었는데 지관이나 스님이 복이 나간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문은 사용하지 않고 걸어두었다. 대문을 내거나 대문의 사용에 대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들, 스님들이 와서 그전에도 시주 좀 달라구 그러지 않았어. 달라믄서, ‘대문을 하나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 . 저 위 집에선 행랑에 대문있구, 행랑 사이에 또 대문이 있거든. 그 문을 열어놓지 말라구 해서 안열어 놓겼지. 그러구 이 지금 저 행랑과 행랑 사이에 대문을 쓰구, 이쪽으루 대문난 집이 없어 우리 동서네. 그 문 노상 걸어. 쓰지 말라구 그래서. . . 길로 낸 대문을 닫아두는 거지, 문을 열어놓지 않고 빗장 질러서.” (한상돈씨)

“대문은 전에두 거기 있는거야. 그 자리에 달았어요. 왕기지(웁기지) 말라구 그랬어요. 대문은 책보구 달아야 하. 아무데나 안내. 대문은. 그제 대문은 물어보구. 어느 틀루 내라든 어느 틀루 내구. 또 그 문두 땡기지 말라구 하면 땡기지 않아야 해요. 문 내기두 어려운 거야. 아 어렵드라구 그제. 거기 저 갑골 유석이네 두 이쪽 문은 안 땡겨요 다. 이쪽문 왼쪽문. 닫아 걸어두지. 문이 두 개 있는 집이는 한쪽은 땡기지 말라구 그랬대. 쪽문 닫은 거지. 쪽문. 여기 우물 길르러 땡기는 쪽문 달구, 저쪽에 저기 대문 단 거지. 우리 요기 쪽문 있잖아. 바깥으루 나가는 문 있구.” (이순덕씨)

다음 면담은 폐쇄적이면서 집 높이를 낮게 짓는 이유가 기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집이 산소와 마찬가지로 주위에 낮게 둘러 쌓여야 한다는 풍수지리적 생각에 닿아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복나간다구. 지관이. 그제 대문 너무 환하게 뵈믄. 길에서 이렇게 디다(들여다) 보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믄, 대문이 길루 환하게 텃잖어. 지금하구 반대예요. 반대가 뭐냐든 집이 좀 이렇게 앉아서 폭 쎄야지(싸여). 우리두 지금 지으면 이거 돌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지역을 봐서 폭 쎄야, 먼지나두 쎄잖어. . . 사람 사는 것두 쎄야 된다 집이. 집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집터 나뉘면 집이는 폭 나온 데 지은 덴 아까두 샷갓추리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샷갓 얹어놓은 데같은 데가 샷갓추리야. . . 지금은 달르잖아. 전에 폭 쎄(들여간) 자리에 지으라구 그랬어. 이렇게 보믄은 여기 기 좀 뒤가 높구 옆이 좀 이렇게 폭 쎄자리. 그래서 우리두 이거 그때 지을 때 두 돌지 않았어. 아주. 쎄야지. 아까 그 복, 여기 이 집이 그 만 사람이 사갔을 때 우린 너무 큰데, 내가 살구 있는데, 우리 형이 가마채, 옛날 가마, 그거 갖다 놓은 집 길다구, 쎄질(싸질) 앉았다구 그랬는데, 인제는 이렇게 허든 인제 쎄지 않아두. 그러게 지금 저 뭐 좀 했다 허는 집이를 가봐. 부엌이래두 거기 이제 폭 쎄 있구.” (한상돈씨)

위 면담에서 집이 둘러싸여 우묵하고 낮게 위치해 있다는 “폭 쎄다”라는 민속용어를 발견하였다.

다음은 토속신앙이 집을 짓는데 영향을 미친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집안에서 모시는 토속신앙에는 성주님, 지식님(지석칠성), 대감님, 별상님, 터줏대감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집을 짓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성주신앙이었다. 성주는 그 집의 중앙으로 집을 지을 때도 가장 먼저 위치가 정해지고 그 기둥이 세워졌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대략의 칸수가 정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성주신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토속신앙 중 성주신앙

- 안방은 보통 2칸으로 되어 있고 문도 2개가 있었는데 그 문과 문 사이에 있는 가운데 기둥을 성주라고 함
- 이 집의 중앙이라고 함
- 위에 천을 매달아 놓았음
- 집을 새로 질 때 성주단에다 쇠(나침반)를 놓고 지관이 좌향을 정했음
- 집을 지을 때 성주를 제일 먼저 세우고 거기에다가 고사를 지냈음
- 집안에 큰일을 해도 성주에다가 먼저 고사를 지냈음
- 탈곡을 하면 제일 먼저 성주단 밑에다 한가마를 담아다 놓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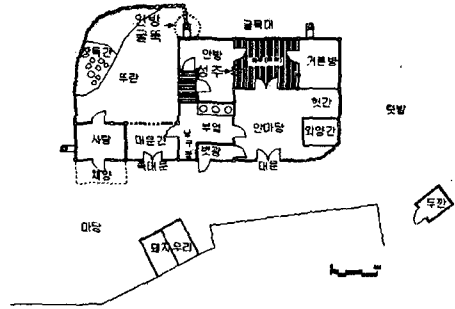


그림 20. 한상돈씨 새을(乙)자집. 고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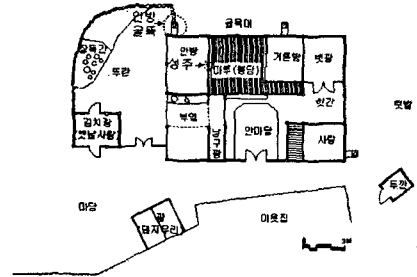


그림 21. 한상돈씨 튼입구(Π)집. 현재

한상돈씨 집의 경우에 1977년도에 새을(乙)자집에서 튼입구(Π)집으로 집을 지었는데 안방 굴뚝의 위치와 성주의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관례에 의해 좁은 대지의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조건에서 집을 짓기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최소중정형 튼입구(Π)집이 지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집 짓기 전후의 평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이전 '새을(乙)자집'이라 부르는 한상돈씨 집은 'ㄱ자+사랑채' 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에 대표적인 '튼입구(Π)집'으로 고쳤다. 있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예전 집 안방 뒤에 있는 굴뚝의 위치를 넘어갈 수 없다는 관례로 안방굴뚝의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굴뚝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거지. 하튼 그전 굴뚝으로 집을 올라 가든 아주 안돼. 지금 굴뚝은 다시 만든 거지, 고 자리다가 고대루. 다시 만 터에서 지으면 플라두, 혈구 지었을 땐 아주 고걸 잘 표시한다구. 저 위 집짓는데, 지금 세상에 그걸 뭘 보냐구 그러는데. 촌엔 아직두 그래. . . 그런 식으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든 넓잖아. 저 위 다 우리 꺼니까. 근데 못하게 허잖아.” (한상돈씨)

아래쪽으로는 이웃집에 바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없었다. 이것이 집 자체가 최소형으로 형성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행랑을 따로 짓지 않는 튼입구집이 이 상황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곳방과 안방퇴의 필요가 없어지면서 안방의 크기가 (8자×8자)×2칸을 유지한 상태로 성주의 위치도 정해지고 다른 실들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안방기둥과 성주의 위치에 맞춰서 나중에 정해지는 것을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왜 지었냐면은 ㄱ자루 질래면은 좁아. 쓸모가 없잖아. ㄱ자루 지면은 이거 이렇게 맞으면 헛간두 없지. 방이 들어면 손님이 와도 그렇고 다 그럭허는데도 행랑을 따루 짓재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간편허게 그냥 지면 좋구. ㄴ자루다가 허면 헛간두 있고 사랑두 있구. 그러니까는 행랑까지 한꺼번에 되는 거지.” (한상돈씨 부인)

“아니, 터가 없잖아. 이렇게 터가 좁아서 아까 지었다구 그랬잖아.” (한상돈씨 부인)

한상돈씨 집을 짓기 전과 후를 비교한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상돈씨 집의 집짓기 전·후 비교

		집 짓기 전(1977년 이전)	집 지은 후(1977년 이후)
1. 집의 명칭		새을(乙)자집(ㄱ자집+사랑채)	튼입구(ㄷ)집
2. 공간의 종류(차이점)		대문간, 안방퇴, 곳방, 사랑채 앞의 채양, 외양간, 돼지우리	거른방퇴, 사랑퇴
3. 주출입구		뚜란쪽으로 들어가는 쪽대문을 주로 사용 (다른 실들과 연결이 더 편리했기 때문)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사용
4. 동선	밤상이 들어갈 때	부엌→ 뚜란→ 안방퇴→ 안방 (안→ 밖→ 완충공간→ 안)	부엌→ 회침(마루)→ 안방 (안→ 안→ 안)
	출입구에서 각실로 들어갈 때	쪽대문으로 들어가면 뚜란(외부공간)에서 부엌, 안방, 사랑으로 다 연결됨. 단 거른방은 부엌이나 안방을 통해서 들어감.	대문으로 들어가면 마루로 들어가든지 부엌으로 들어가든지 사랑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내부에서 연결되어 들어갈 수 있음
5. 문, 창호		송판문이나 살문 등 여닫이문이 대부분이었고 외쪽문이 많은편 (폐쇄적임)	미닫이문으로 많이 바뀜 (좀 더 개방적)
6. 뗏마루		안방퇴	안방퇴는 없어지고 거른방퇴와 사랑퇴 가 생김
7. 뱃방		부엌 옆에 작게 달려 있었음	방과 비슷한 크기로 안채에 붙어 있음 (뱃방의 비중이 증가됨)
8. 농기구의 보관		외양간 옆에 있는 헛간에 보관	돼지우리에 보관 (지금은 돼지를 안먹임)
9. 김치의 보관		부엌 안에 있었음	현사랑을 김치광으로 사용

집의 명칭은 대체로 지붕의 모양을 보고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평면상으로는 ㄱ자 집이나, 지붕의 모양이 새을자라서 새乙자 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새乙자집에서 문은 대문과 쪽대문, 안마당에서 봉당과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은 송판문이고 나머지 방문은 대부분 외쪽 여닫이 살문의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선의 흐름은 새을자집에서는 주출입구가 뚜란쪽이었다가 튼입구집에서는 안마당쪽으로 변화됨을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기투(튼입구 대문) 인제 부엌 가구, 안방 들어가구, 또 사랑투 들어가구. 이쪽에 사랑문이 나 있잖아.” (한상돈씨)

또한 주출입구가 뚜란 쪽에서 안마당 쪽으로 바뀌면서 뚜란의 성격과 안마당의 성격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튼입구집에서는 안마당의 영역이 뚜렷해지고 동선의 중심이 되었으며 좀 더 아늑한 내부와도 같은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밥을 해서 안방으로 들이는 동선도 변화되었는데 부엌에서 뚜란으로 해서 안방퇴에 상을 놓고 안방문을 열고 들이던 것이, 이제는 외부를 거치지 않고 부엌에서 마루(회침)를 거쳐 안방으로 내부동선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생활의 편리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됨에 따라 안방퇴나 곳방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4-2. 경제적인 최적화의 추구

거주자의 관념중 하나는 집의 규모가 너무 크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집을 휘둘러야지, 크게 지으면 집한테 휘둘린다”는 민속속담¹⁶⁾은 집을 크지 않게 최소형으로 짓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는 이거 집 크게 지었다는 거야. 못허러(뭇허러) 크게 짓나구 그러드라구. 식구는 작은데 크게 지른 집헌데 휘둘리른 안된대는 거지. 우리 이모두 와서 그러시드라구. 사람이 집을 휘둘러야지. 뭇 혼자씨가 집을 크게 짓나구. 그니까는 애 아버지하구 애 고 모허구 또 들째고모허구 있을 때니까는. 그리간 아이 셋에 나 들이니까는 내우가.” (한상돈씨)

튼입구(ㄷ)자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채와 행랑채가 결합된 튼입구집이 안팎채로 안채와 행랑(바갈채)을 따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든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채 지면 돈이 많이 들어야지. 이 사람아 돈 들어. 그렇지 두 번 짓는 건데. 한 채 짓구 바갈채 짓구 그니깐. 사람도 많이 들구. 밥. 옛날에 국 한 덩어리, 밥 한 덩어리라구 그랬는때. 그렇게 많이 드는 건데 사랑은 그냥 뭇 돈만 가지면 채로 저 도급으루 뺄기면 지어들이 허지 뭇. 왜 그랬냐면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그랬어요, 또 행랑 저 보겠냐구. 그리구 사랑을 달란 거야. 저 사랑을 지은 거야. 그리구 위어투 ㄱ자루 해 갖구선 고기다 한 칸 더 다는 식으루다가 아주진 거야.” (서덕용씨 어머니)

“바갈채 해두 되는 건데, 지금 봐서는 기냥 한 해에 기냥 다 짓구 뭇 만다구. 요걸 이렇게 허른 마음

16) 내부인 문화는 그들만의 속담, 표어, 교훈, 秘方의 형태로 나타난다. Clifford Geertz, *Interpretation of Culture* 44쪽

갈애두 이따 행랑 질래든 돈이 더 많이 들잖아.” (한상돈씨)

또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새나무를 사다가 짓지 못하고 현재목으로 이세집, 삼세집을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짓지 못하고 작게 짓고 높이도 낮아졌다고 한다.

“이거이 혼(현)재목이니까는 고것두 맞춰야 되거든. 혼재목은 이세집이라구. 새 재목을 갖다 깎아서 목수가 새루 짓는 게 아니구. 남이 지었던 거 헐어 놔든 걸 사다 하니까 이세 집이지. 우린 그래두 이세집이지. 금화네는 삼세집이야. 그러니까 그 칸수 적을 수밖에 읍어. 그런 건 왜 그런가 허니 재목이 상허잖아. 상허면 아주 줄여야지 그대루 짓기는 힘들단 얘기야. 그러니까 칸수 마이(많이) 안 짓간 그렇겠지 뭐. 칸이 작으니까 좁을 수밖에. 동우네두 그 ㄱ자집인데 두란이 넓어. 동우네는 시방 고쳤으니까. 우린 간 반통으루(12자 폭) 돌았시오. 그 집은 한 칸(8자). 두란(안마당)은 좁아두 방은 넓어야 한다구. 그래갓구 간반을 넓힌 거지. 마루두 시방 이걸 달았으니까 그러지(안마당쪽으로 더 늘림).” (서덕용씨 어머니)

최소중정형으로 집을 짓는 이유와 집높이가 낮은 이유도 기존연구에서는 바람의 영향이라는 기후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 재목을 사다가 “이세집”이나 “삼세집”을 짓기 때문에 상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다듬어 사용하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근데 그 칸수 적을 수밖에 읍어. 그런 건 왜 그런가 허니 재목이 상허잖아. 상허면 아주 줄여야지 그대루 짓기는 힘들단 얘기야. 줄이는 거는 상허는 거 줄이는 거는 씨가 알아지는 거지. 금화네 집이 알잖아요. 우린 원래 이건 그래두 이세집이라두 잘 지었던 거라 이게 높지. 마루서면 단 높지. 금화네 알잖아 마루두. 다 알잖아. 금화네 이거 이런 거두요 3센치인가 줄여서 지었어요. 금화네 집 그 두 푼인가 더 낮은 집인데, 다 이거 깎아 가루구선 지었잖아. 다 줄여서 지어야지. 그거 맞출려면 심들어.” (서덕용씨 어머니)

이세집을 만드는 과정을 목수와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이 썼던 나무 다시 쓰는 그거보고 이세집이라 그러죠. 3세집까지는 잘 안했는데 이세집은 사개(맞춤) 그런거 다써요. 중방 끌구녕이 안맞으면 나무로 다 매운다. 끌구녕이 안났을 때 매꿔져있으면 아 이거 이세집이다 그러죠. 이세집은 아주 허물 때 잘 허무는 거예요. 또 쓸려구. 나무로다 만든 때, 도끼같은 거 말고 나무로 만든거로 살살 치면 기스도 안나고 신중하게 뽑아서 다시 쓸거니까. 뽑으면서 번호를 매기죠. 1번은 성주기둥. 2, 3, 4, 5, 번하면서. 나중에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박시열 목수. 67세)

홍수에 떠내려 오는 집의 나무도 썼는데 “수상목”이라고 불렀다.

4-3. 생활의 편리

연구대상 집의 지어진 연대는 대략 1930년대에 서 1970년대 사이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나가고, 가족구성이 핵가족화하고, 농업기술도 발달하여 농사일이 간소화됨에 따라서 집의 형태와 그 안에서의 생활도 달라졌는데, 변화된 생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트입구집이 지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랑을 따로 짓지 않고 한 채로 짓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생활의 편리라는 면에서도 적합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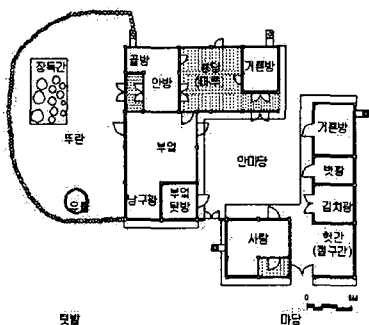


그림 22. 상류형의 안팎채집(라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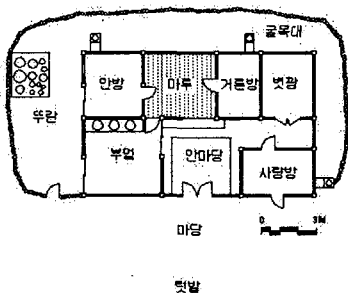


그림 23. 한채로 지어 경제적인 트입구집 (북쪽측)

“왜 지었냐면은 ㄱ자루 질래면은 좋아. 쓸모가 없잖아. ㄱ자루 지면은 이거 이렇게 맞히면은 헛간두 없지. 방이 들이면 손님이 와도 그렇고 다 그럭허는데 또 행랑을 따루 짓게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간편하게 그냥 지면 좋구. ㄷ자루다가 허면 헛간두 있고 사랑두 있구. 그러니까는 행랑까지 한꺼번에 되는 거지.” (한상돈씨 부인)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 말 들을 때 ‘튼입구자로 지으면 괜찮지 뭐 행랑두 안짓구’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구. 우린 이렇게 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어. 행랑 다시 짓구 또 싫잖아. 또 여기다가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짓니까...” (한상돈씨)

“튼입구로 지으면, 행랑도 안짓고 괜찮다”는 민속속담이 경제적인인과 생활의 간편 모두를 얘기해준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한 집에서 삼,사대가 사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이대가 사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단출하게 살기를 원했다. 어른과 아이, 시부모와 며느리와 위계와 구분보다는, 이동 동선이 편리하고, 다용도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튼입구집을 지었다고 한다.

“ㄷ자집은(튼입구자집) 형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방, 거른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으니깐 쓰기가 좋지. 편리하구. 내가 얼마치 필요하게 짓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며느리 식구 있구 할아버지 식구 있구 그러면은 안채 이렇게 해서 따루따루 허지만, 우리는 이 핵가족 식으루 단출허니까 모든 것이 한 테두리 내에서 허기가 쉽지. 쉽게 얘기 허재는, 안채하구 행랑하구는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 그렇잖아요, 거리가. 안채는 높지, 행랑은 저 밑이지 왔다갔다 하려든. 그렇게 생활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복잡해. 그렇지만은 요 ㄷ자집은 고 내에서 넓어봤자 요 테두리니까. 여기서 행랑은 저 아래 또 하나 바깥채가 따루 있잖아요. . . 다 이끌어 나갈러는 일이 많구 또 인력을 더 소비시키는 거지. 말하자른, 빗자루질을 해두 그렇구. 그런데 이거는(튼입구집) 안방, 거른방, 또 사랑방 다 있으면서두 한데 붙어 있으니까 단출허지. 기리구 웅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구분들이 없으니까 단출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살이 유두 없구. 그러니까 이런 식으루 지은 거지. 한테루 이렇게 살트는 이거는 자식들 하구 부모밖에 없으니까 편리하다 이거지.” (서지수씨)

‘튼입구(Π)집’과 ‘ㄱ자 + 행랑채(바깥채)집’과 비교하면서 튼입구(Π)집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 지어졌음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최소중정형 튼입구(Π)집’과 ‘ㄱ자+행랑채집’ 비교

	Π자집	ㄱ자+부속채집
공간의 사용	한 채 안에서 식구들이 다 함께 생활함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위계질서에 따라 구별되어 생활함
공간의 크기	방(안방, 거른방, 사랑)이 3개이고, 각 방 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좁은 편임	방의 수는 같은데 공간이 넓음
안마당(뚜란)의 크기와 용도	안마당(뚜란) 하나의 실처럼 매우 작고 투벽 슬레이트로 처장을 막아 반내부화 되어 있음	안마당(뚜란)이 넓음
단높이	단의 높이가 같음	안채가 바깥채(행랑채)보다 높음
채광	대낮에도 저등불을 사용해야 할만큼 매우 어두움 (특히 안방)	Π자집보다는 채광이 잘됨
방향	대개 대무족이 남쪽이고 대무를 주축으로 테두리로 해서 실들이 돌아감	방향이 ㄱ자와 부속채 다 남쪽을 향함

이와 관련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채는 높아요 거기가(단이). 행랑채는 썩 들어가서 그 아래니까 이렇게 내리다(내려다) 보구 또 쳐다 보구. 그래 이런 집 짓는 방식을 안채하구 사랑채하구 그런 거리감을 두는 거지. 말하자른 그런 식이에요. 안방에서 이리오너라 허면 중 부리구 그런 식으루. 그렇지만 이 ㄷ자집은 그런 게 아니거든. 한 채루 딸려 붙은 거니깐 여기서 다 생활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래 할아버지는 사랑채루 물러나구 며느리나 이런 그 자식들은 안방으로 들어가구. 옛날엔 웬만해선 안방에 다 들어가구. 이리 할아버이네가 행랑에서 생활하구. 그런 거 전통시대에.”(서지수씨)

4-4. 서울 상류주거의 동경

강화도의 주거형태가 선행연구에서 서울 상류주거에 영향받았음을 언급한다.¹⁷⁾ 앞서서도(4-1)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잘 지은 집을 모델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도 一자집이나 ㄱ자집보다 Π자집, ‘ㄱ+행랑채’집(안팎채집), ㄷ자집과 같이 채를 꺾는 형태, 즉 중정을 만드는 형태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편이 좋을수록 그런 경향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강화도 민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병란 때 피난 수도가 되면서 귀족층들의 왕래가 활발해 지면서 서울의 관청, 상류층 가옥과 민가 구조가 강화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석, “중부형 민가 평면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지리교육학 석사논문, 2000. 50-51쪽

“잘 짓는다하구 한창이었지. 사람들이 이 터진 입구자집을 좋다구 그랬어요. 좀 크구, 방... 컸죠. 그전에 쪼꼬맻드랬지. ㄱ자집보담은... 방 하나 방 하나 구들 하나 부엌 하나 그랬죠. 이게 그전에는 저 ㄱ자집 一자집으루 많이 지었는데, 차차 그 발전되가면서 이 ㄱ자루 짓구, 터진 입구로 또 짓는 사람들두 있구 그랬지.” (황경준씨)

강화에 一자집보다 ㄱ자집 혹은 중정형 집이 우선함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우리 처가집은 안팎이 다 있지 뭐. 기러니깐 ㄱ자에다 여기 이렇게 받치는 거지. 안채가 ㄱ자면은 여기서 받치려므는 ㄴ자루 해야 허잖아. 강화에 그런 집이 많아. 그런 집이 그냥 기와집 곁여(같다). 저런데 집은 일자집 아니야 대개. 저 경상도나 강원도나 저 아랫 역두 전부 일자집이야. 근데 여기 집 이런 식으루 저 놓른 참 보기 좋아. 이런 집이나 안팎에 이렇게 해 놓 집.” (한상돈씨)

평생 집을 지어온 목수는 강화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一자집보다 ㄱ자이 많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 경기도는 서울 대궐과 가깝잖아요. ㄱ자 거기서 온거죠. 지붕개량할 때(박대통령시절)에도 여기는 ㄱ자가 되어 크고, 그쪽에는 一자라 30만원이면 가지고 짓는데, 여기는 30만원가지고 못지어요. 남쪽의 집을 기준해서 지붕개량한거죠.”(박시열 목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집의 형태, 크기, 사용에 있어서 상류주거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9. 강화도 민가에 미친 상류주거의 영향

- ① 一자집이나 ㄱ자집보다 Π자집, ㄱ + 행랑채(안팎채), □자집을 선호하는 경향
- ② 사랑채에 남자 어른이 기거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음)
- ③ 집을 크게 짓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었음
- ④ 남자들은 여자들의 집안일 하는 공간인 부엌이나 두란에는 별로 출입을 안함

현장조사를 통하여 마당이 넓은 상류주거형 튼입구집이 발견되었다. 신상영씨 집은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다른 최소중정형 튼입구집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다. 신상영씨 집안은 신봉1리인 곡촌부락의 유지로서 예전에 그 마을 일대의 몇 만평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집의 형태를 그대로 보전하며, 형수님이 그 집을 지키며

거주하고 있었다. 집의 평면과 상류주거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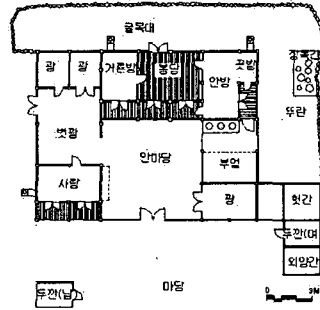


그림 24. 상류주거로서의 튼입구집 (신상영)

표 10. 상류주거로서 신상영씨 집의 특징

- ① 광(수장공간)의 규모가 상당히 큼
- ② 뿔마루(완충공간)의 발달
- ③ 마당이 매우 넓음
- ④ 사랑은 두칸으로 되어 있고 벽장도 갖추고 있으며 직접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
- ⑤ 두칸이 남녀가 따로 분리되어 있음

마을의 재력이었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을 보관하는 수장공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며, 완충공간의 발달로 공간의 위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에는 집안의 남자 어른이 기거하셨고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자식교육 때문에 식구들이 다 서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혼자라도 사랑을 지켰다고 한다. 신상영씨 할아버지가 연로해서 돌아가신 후에 바로 큰아버지가 사랑에 나가 사셨다고 한다.

이상의 면담을 통하여,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작은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一자가 아니고, ㄱ자로 꺾고, 다시 작은 안마당임에도 불구하고 튼입구자로 짓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서울의 영향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4-5. 바람의 영향

기존 서해안 도서지역 주거 연구나 강화도 주거 연구에서 기후적 요인으로 바람의 영향을 원인으로 보는 위한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¹⁸⁾ 그러나 그

18) 김광연, “서해도서 가옥에서 찬바람을 줄이기 위한 여러

해석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다지 실증에 성공하고 있지는 않다.¹⁹⁾ 내부인인 거주자들은 주거형성 요인으로 바람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관련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틈입구자 집 고것두 인제 7자에서 한 칸 더 내려간 거루 봐야지. . . 틈 입구자는 중간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 온대든지 해가주구 그 바람막이 그런 식으루 해서 한 줄 더 내려 지어가주구 틈 입구자... ㄷ자 집이죠.” (이용호)

틈입구자 집은 대문이 있는 남쪽을 제외한 3방향에 마치 성곽처럼 닫혀있는, 말 그대로의 폐쇄형이다. 대청에 해당되는 봉당마루 뒤쪽에 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안마당으로 향해서만 열려있다.

“여기(봉당) 창이 있었는데 추우니까 다 막았지. 여름엔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이쪽 대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여름엔 시원하지. (서지수)

본 연구대상 집이 특별히 바람과 추위의 영향을 더 받은 결과물임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강화도 북서부의 틈입구자형 민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주자의 관념과 삶의 방식, 즉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집의 형태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보자로서의 거주자 면담을 통해 과거 삶을 복원하여 집의 형태를 설명함으로써, 형태적 유형연구와 기후로서의 해석을 넘어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화도 최소중정형 틈입구집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들은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리

가지 시설을 발견할 수 있다. . . 백령지역에서 퇴방앞에 널찍을 세우거나 연평도에서 지면보다 50cm나게 집을 앉히고 마당이 아주 좁은 따리집에서는 공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줄이려고 처마주위에 비닐을 늘이기까지 한다.” 「한국의 주거민속지」 221

19) 손승호외, 강화도의 동부를 제외한 북, 서, 남부에 (본 논문의 북서부 포함됨) 북방식 폐쇄형 가옥구조가 발달하였다고 보고, 그 원인으로 해풍과 추위라는 기후와 더불어 황해도 평안도와 의 해상교류를 또 다른 원인으로 해석한다. 「강화지역 폐쇄형 가옥의 형성과 변화」 114쪽

한 ㄷ형태의 민가유형을 ‘틈입구집’이라고 부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ㄷ자집이라고 명명한 것과 구별된다. 외부자로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분류한 일반적 명칭은 거주자들이 실제로 부르는 명칭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거주자의 분류체계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일반적 ㄷ자중 특수한 틈입구집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둘째, 최소중정형 틈입구집의 형태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평면형태는 채의 폭이 한칸반(12자)인 ㄷ자형의 작은 규모이다. 채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최소중정은 트인 쪽에 담장과 대문으로 막힌다.

2.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 결합하여 ㄷ자형 하나의 채를 이루고 있다. 기존 강화도 민가의 주류인 7자집에 사랑채 영역에 해당되는 벗광과 사랑방이 첨가된 형태이다.

3. 각 실은 8자칸의 모듈로 많이 지었고 형편이 어려운 집은 7자 반, 7자, 6자까지도 지었다.

4. 벽면에 비해 작고 향시 닫아두는 폐쇄적 창호 방식으로 어둠던 집안이 후에 점차 개방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폐쇄밀집형 틈입구(ㄷ)집을 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믿는 관념의 작용이 크다. 지관이나 민간 신앙을 믿는다. 예를 들면 해운을 본다던가, 증축시 굴뚝선 앞에 만 집을 짓는 규칙을 지키고, 복이나 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장, 대문으로 가리고 막는다. 폭 쌓인 곳에 입지하여 낮게 짓는다든가, 집에 휘둘리지 않게 적정규모를 선택한다.

2. 경제적인 방안으로서 안팎채를 따로 따로 짓지 않고 안채와 행랑채가 완전 결합된 형태로 지었다. 또한 2세집으로 표현되는 재사용 목재로 인하여 규모가 작아지고 낮아졌다.

3. 3대가 함께 살던 데서 핵가족화 하면서 안마당 중심의 최소 동선으로 각 공간을 사용한다.

4. 서울 상류주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 1자형 보다 최소한의 중정을 갖는 소형주거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내부적 성격이 있던 외부공간인 최소 안마당이 점차 내부 공간화 한다. 틈입구자 지붕에 맞춰 반투명 플라스틱 슬레이트로 덮고 준내부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상의 강화도 최소중정형 트입구자집 연구에서 거주자들의 관념과 생활을 통하여 그러한 유형의 집을 짓는 이유를 추론하는, 유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1. 강화사편찬위원회, 「강화사」, 성지문화, 1976.
2. 고창용, “서해중부 도서민가의 평면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3.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8.
4. 김홍식, 「한국의 민가」, 서울 : 한길사, 1992.
5. 박민수, “강화도 전통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89.
6. 박병석, “중부형 민가 평면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학 석사논문(지리전공), 2000.
7.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0.
8. 송병언, “생활문화로 본 제주민가 고찰 : 동·서부에서의 정지거리 유·무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8.
9.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10. 유진상, “교동지역 전통민가의 평면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11. 윤기원, “서해중부 도서지역 전통민가의 평면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12. 정기홍, “경기만 도서민가의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9.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95.
14. 김성우·윤정숙·박선주, “육간팔자형 민가의 성격과 공간 확장 형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9.
15.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1.12.
16. 손승호, 장규진, 김동근. “강화지역 폐쇄형 가옥의 형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2001.6
17. Spradley, James.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18. _____.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19.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Eaglewood Cliffs, 1969, 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서울: 열화당, 1985.
20. Tyler, Stephen, *Cognitive Anthrop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21.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c Book, 1973

(후기: 1988년경부터 연구실에서의 현장답사에 의해, 본 연구대상인 독특한 주거가 강화읍에서 48번 국도를 타고 서북쪽 하점, 인화, 교동도 선상에 분포함을 보고 그 원리를 알고자 하여 논문으로 완성하였다.)

Interpretation of House Form with Dweller's Life, on the U-type Folk Housing of Minimum Courtyard in Kangwha Island

Lee, Hee-Bong

(Professor, Faculty of Architecture, Chung-Ang University)

Kwon, Oh-Kyong

(Master,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underlying principle to form the U-type folk house in the northwestern part of Kangwha Island by viewpoint of inner residents.

It is found that many factors other than climate are coincidentally affecting the shape of house; Resident's fixed thought like following geomancer's suggestion, seeking fortune, and locating house enclosed low site; Economic reason of uniting one house with two buildings and making small type by used timber from dismantled house; Centralizing life with small courtyard by reason of family type change from extended to nuclear; Influence from L or □ type of upper class building at Seoul area.

The method is thick description of culture with ethnographic method from cognitive anthropology; Observing the form and restoring residents' life with open-ended deep interview.

Key words : Minimum Courtyard, U-type Folk House, Residents' Culture, Underlying Principle, Ethnography, Cognitive Anthropology:
